



고대 안산 장기이식팀

국내최초 전격성 간부전 (UNOS IIA) 상태에서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성공

(Successful ABO incompatibl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in fulminant liver failure : UNOS IIA)



고려대 안산병원 간담체외과 송태진 교수팀이 간부전으로 간성혼수 상태인 뇌사자간 대기자에게 전격성 간부전 상태에서의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을 국내최초로 성공했다. 더욱 의미있는 점은 간담체외과 송태진, 한형준, 윤삼열 교수로 이루어진 장기이식팀은 지난 3월 19일 혈액형이 O형인 김OO씨에게 뇌사자 간이식 우선순위상태 (UNOS IIA) 에 서 기다릴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이 지나 뇌사자의 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심한 폐렴으로 사투를 벌이던 중에 폐렴의 호전이 보여, 혈액형이 A형인 김씨 부인의 우측 간으로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을 성공했다.

Contents

2p 고대병원 명의
간담체장기이식팀



3p 포토뉴스
간호주간



4p 책소개
하워드의 선물



4p 헬스가이드1
잘못된 마우스 사용 주의



5p 여행정보
설악산, 신흥사



6p 현장을 찾아서
의료사회사업팀 송지원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 <http://m.kumc.or.kr>




[1면에 이어..]

간부전으로 인한 간성혼수로 응급실을 내원한 김씨는 의식혼탁의 정도가 계속 심해져서, 빠른 이식 수술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친지 중에 적합한 혈액형과 적절한 간기증자가 없었다. 한국 장기기증원을 통해 응급 뇌사자의 간기증을 기다려봤지만 2주간의 기한이 지났고, 환자는 폐렴과 사투를 벌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간기증자가 없어 희망을 잃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이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의 간기증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은 통상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혈액형 특이항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전 최소 2주가 필요하고 단일클론항체, 혈장교환술 및 고단위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체력이 있어야 하며,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염도 전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간성혼수를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두 달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상태였고, 욕창과 폐렴이 심해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의 시도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송태진 교수가 이끄는 장기이식팀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환자관리와 치밀한 수술계획 하에 고난도 이식수술을 국내최초로 성공시켰다.

이러한 수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병원의 시설과 시스템 뿐 아니라 이식팀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한데, 외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마취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여러 진료과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협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이식팀은 최선의 준비와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했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수술 후에도 이식 받은 간에 거부반응과 폐렴악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꾸준한 관리와 세밀한 검사가 이뤄졌다.

수술을 집도한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송태진 교수는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혈액형 부적합 생체이식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격성간염과 중증감염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남편을 위해 간을 기증한 부인의 사랑, 간병하신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수술성공을 통해 고대안산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뛰어난 역량을 확인한 셈” 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이번 수술을 비롯해 수술 중 최고 난이도인 장기이식수술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간이식, 신장 이식 뿐만 아니라 심장이식 등 다양한 이식수술을 성공했으며, 흉부외과 신재승, 민병주 교수(심장이식), 간담췌외과 송태진, 한형준, 윤삼열 교수(간, 신장이식), 등 전문 의료진들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송태진 교수는 “안산병원의 높은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장기이식수술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이식분야의 개척에 매진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식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선연주회 등을 통하여 이식환자의 정서 함양 및 교류를 증진하고자 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간담췌장기이식팀

윤삼열 교수
간 췌장 담도질환
장기이식

송태진 교수
간 췌장 담도질환
장기이식 혈관

한형준 교수
간 췌장 담도질환

[Photo News]

2013년 간호봉사주간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5월 12일 나이팅게일 탄신일을 기념하며 매년 5월이면 간호봉사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규정준수’, ‘내·외 고객을 위한 실천’, ‘환경 개선 실천’ 등의 활동으로 ‘2013년 간호봉사주간’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오전 09:30부터 12:00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원내 간호봉사활동에서는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중측정을 통한 건강

상담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음료 및 차 서비스 봉사, 풍선아트 등을 실시했다.

처음에 낯설어하던 환자들도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간호사들의 모습에 가던 길을 멈추고 진료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병원 내원객은 “빠른 시간 안에 혈당·혈압검사를 받고, 수간호사의 전문적인 건강 상담까지 받으니 병원을 찾은 보람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한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라며 행사참가 소감을 밝혔다.

특히 풍선아트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어제(5월 5일, 어린이날)의 행복한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부모들까지 행복해했다.

행사를 총괄한 김정숙 간호실장은 “봉사와 먼저 다가갈 실천하는 사랑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힘이 있다”며 “오늘 원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이뤄지는 간호부 행사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안산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News]

BEST SMILE PHOTO!



1등! 물라로이드



2등 커디포트



3등 탁상용 선풍기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이상우) 친절리더팀(팀장 박미연 수간호사)이 교직원들에게 기분좋은 미소를 선물했다.

4기 친절리더팀은 4월 30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1층 직원식당 앞에서 '미소 Sense' 캠페인 및 이벤트를 실시했고 약 180여명의 교직원들이 포토존 및 레드카펫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이 중 가장 환하게 웃는 사진을 선정했다.

잘못된 마우스사용, 손목관절 병든다

손 크기에 맞는 마우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패드, 팔 받침대 등으로 과도한 손목 압력 줄여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수부외과 박종웅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 마우스 과사용 시 발생하는 손목 안쪽 통증의 원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우스 종류와 아래팔의 위치, 사용동작에 따라 손목관절 안쪽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이 달라져 오랜 기간 사용 시 통증, 힘줄염, 관절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작업은 업무나 학습 등 현대인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사무실 환경에서는 하루에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컴퓨터 작업 및 마우스 사용으로 손목관절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른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 손목관절 주위의 굳은살, 힘줄염, 신경압박 등 과사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박종웅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과사용 시 발생하는 손목 안쪽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30세의 오른손잡이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마우스 종류 및 팔의 위치, 마우스 사용동작 등에 따라 손목관절 안쪽(두상골 주위)에 가해지는 압력변화를 측정하였다.

노트북용 소형 마우스, 일반형 마우스와 인체공학 마우스를 비교한 결과 손목안쪽(두상골 부위)의 접촉압력은 인체공학 마우스가 가장 높았고, 일반형 마우스, 노트북용 소형 마우스 순으로 감소하였다. 인체공학적 마우스의 경우 장시간 사용 시 상지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손목을 다른 마우스 보다 더 외회전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목관절의 안쪽 즉, 두상골 부위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의 위치 변화에 따른 비교결과, 손목을 책상 모서리에 걸칠 때 손목관절 안쪽에 가해지는 접촉압력이 가장 높고, 아래팔 절반을 책상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래팔 전체를 책상위에 올려놓았을 때 순으로 감소하였다. 박종웅 교수는 연구결과에 대해 “손목이 책상 모서리에 걸칠 경우 팔 전체 무게가 손목관절 안쪽의 가장 돌출된 뼈인 두상골 주위에 집중되

지만 아래팔이 책상위에 많이 놓일수록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어 피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마우스를 이동 시킬 때 손과 마우스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손목의 안쪽을 책상위에 고정된 채 손목 스냅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경우 손목 안쪽(두상골 주위)의 접촉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 교수는 “나쁜 자세로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 안쪽(두상골 부위) 접촉압력이 가중되어 굳은살이 생기거나 이 부분에 부착되는 힘줄의 힘줄염, 석회성 힘줄염, 관절염,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저림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고 말하며, “인체공학 마우스가 장시간 사용 시 상지의 근육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손 크기에 잘 맞는 인체공학 마우스를 마우스 패드 및 팔 받침대와 같이 사용하면 손목관절 주위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박종웅 교수

바른 마우스 사용자세

- 아래팔을 책상위에 반 이상 올려놓고 사용한다. (혹은 팔 받침대 사용)
- 손목을 책상에 고정 시킨 상태에서 손목 스냅만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지 않는다.
- 패딩이 잘된 마우스 패드(손목 패드)를 사용한다.
- 가능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취한다.

잘못된 마우스 사용자세

- 손목을 책상 모서리에 걸치고 사용한다.
- 손목 고정 상태에서 손목 스냅만으로 마우스를 사용한다.
- 마우스 패드 없이 책상 바닥에서 마우스 사용
-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사용 예
 - 의자에 뒤로 기대고 손목을 책상 모서리에 걸친 상태에서 장시간 인터넷 서핑
 - 장시간 게임 중 반복적으로 빠른 마우스 동작
 - 턱을 받치고 컴퓨터 사용(손목터널 증후군, 척추 후만)



책소개

하워드의 선물



이대로 괜찮은 걸까? 왜 살수록 삶은 힘겨운 걸까?

위기와 방향의 시대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위기의 시대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고갯길이다. 사는 것이 썩썩해서 목이 메고 숨이 차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대학 합격을 위해, 승진을 위해, 취업을 위해 쉽지 않아야 한다. 자칫 멈췄다가는 위기라는 늪이 언제 목을 물고 늘어질지 모른다. 삶 곳곳에 무서운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위기에 휘둘리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댄다. 그러나 곁에는 알팍한 지푸라기나마 건네줄 도움의 손길은 찾을 수 없다. 속 터놓고 고민을 나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멘토 같은 친구, 친구 같은 스승이 절실한 지금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교수

그가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의 교수이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개척자이자 진정한 자선가이며, 밖에 정신을 지닌 최고의 조언자다. 사업적 탁월성, 예리한 심리적 통찰력, 에너지 넘치는 정신력을 갖춘 그는 수천 명의 학생들과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학생들에게는 이상과 같은 스승이었고, 기업의 리더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였으며,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각을 가진 따뜻한 친구이자 너그러운 멘토였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를 찾아가 의지하였고, 그의 지혜와 경험은 삶의 전환점에 놓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최선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병문안을 온 제자에게 평안한 미소로 “난 충분히 만족스

러운 삶을 살았고, 인생에 후회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를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겼던 제자 에릭 시노웨이는 갑작스런 죽음의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이토록 잔잔하게 인생에 대한 만족을 토로하는 스승을 보고 아직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았음을 느끼고, 대학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다시 한 번 스승에게 가르침을 요청한다.

이 책은 수 년 동안 하워드와 에릭이 함께 나누는 대화를 기초로 쓰였다. 하워드의 병실과 서재,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 찰스 강변, 노천카페 등에서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때로는 나란히 앉아서 이루어진 이들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기도 하며,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기도 하고, 친구의 답소이기도 하다.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현명하고 사려 깊은 친구가 “네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라며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뜻하고 정감어린 대화를 통해 에릭이 느낀 감동뿐만 아니라 그가 노교수에게 전수받은 인생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성공을 정의하고 후회 없는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첫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총 열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장마다 하워드 교수는 냉철한 지성과 신선한 시각으로 오랫동안 틀에 갇혀 있던 우리의 좁고 짧은 생각에 반전을 준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지혜’ 에 대한 해답이 독자의 뇌리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터닝포인트의 지혜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새롭게 보는 법은 물론이고 위기에서 삶의 전환점을 찾는 법, 마지막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법, 용기를 선택하는 법, 삶의 균형을 잡는 법, 삶을 망치는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법, 인생의 진정한 멘토를 찾는 법 등 하워드 교수는 친절하면서 날카롭게 인생 경영에 꼭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상징적인 존재인 하워드 교수의 폭넓은 경험에서 바라본, 차원이 다른 삶의 해석을 담아낸 <하워드의 선물>이다. 

글 | 원내기자 송보라(간호부)

나들이 철 전염성질환 주의

중국에서 발생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살인진드기'의 영향으로 감염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날씨가 좋아 나들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낮 기온이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요즘은 특히 각종 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 높아진 온도에 균과 바이러스가 활발해지기 때문인데, 특히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각종 감염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최근 등장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 소참진드기에 의해 물려서 감염된다. 초기에는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략 10%내외로 다른 곤충 매개의 감염병의 사망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드기는 주로 숲이나 들판에 서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아진 요즘 주의해야할 대상이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설사, 구토, 식욕저하,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타 찌르거나 등의 다른 열성 질환도 진드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풀과 피부의 접촉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긴소매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옷을 풀밭에 놓지 않도록 하며 밝은 색은 진드기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진드기를 제거 할 때는 손으로 떼지 말고 핀셋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피부와 가까운 부위를 잡고 천천히 떼어내어야 진드기 체액에 오염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는 야외활동을 한 뒤 1~2주 내에 진드기 매개 질환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 바이러스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에는 노로 바이러스가 주원인이다. 노로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하수의 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킨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심한 장염 증

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소아의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입에 집어넣고 서로 밀접한 접촉을 하는 아이들의 습성 상 전파 속도도 빠르다.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발병하면 며칠간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한 설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탈수증상이 심해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상이 심하면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노로 바이러스는 백신이 따로 있지 않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막기 위해선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와 물의 관리가 중요하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고, 식기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구내염

구내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입 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바이러스성 구내염으로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가장 흔하다. 헤르페스심플렉스(Herpes Simplex)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입 안 점막에 작은 궤양이 생기면서 고열이 나거나 목의 림프선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입 안 점막에 출혈, 심한 궤양, 수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한 통증도 동반하여 침도 잘 삼킬 수가 없어 침을 흘리게 된다.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고 심하게 보채며 고열이 동반되어 쉽게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헤르페스 구내염은 보통 7~10일간 증상이 지속되는데, 국소 진통제를 발라 증상을 가라앉혀주고, 수분을 공급하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여 치료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 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유념해야 하며,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수족구병

우리나라에서 2009년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올해에도 어린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급속히 퍼져 그 위험성과 전염성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족구병은 장(腸)내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주로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난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족구병의 주원인은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수족구병으로 사망한 어린이에게서 '엔테로 71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엔테로 71 바이러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2010년 중국에서 43만명이 감염되고 260여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했다.

수족구병의 주요 증상은 수포이다.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손바닥, 손가락의 옆면,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 그리고 입안에까지 수포가 생겨난다. 수포는 쌀이나 쌀알 크기 정도이며, 일부분에서 약간 가렵거나 아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족구병 유행기에 아이들의 손과 발 등에 이상한 수포 및 발진이 보이면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일부 아이들에게서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뇌염, 또는 심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의 종류가 7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출 후 양치 및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발병 시 대부분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족구병이 발생하면 되도록 집에서 쉬도록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주변 환경을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

여행정보

설악산




1. 설악산 케이블카

아이들과 함께 설악산 정상까지 가기 힘들다면 타보자.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경치는 좋으니 나쁘지 않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장관이다. 10분정도 걸어가면 권금성을 올라갈수 있다. 권, 김의 두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을 쌓고 난리를 피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 성벽은 거의 허물어졌으며 터만 남아있다. 



2. 신흥사

설악산 안에 있는 사찰로 기존 향성사와 선정사가 화재로 소실되고 신의 계시로 창건하였다고 하여 신흥사라 불리게 되었다. 높이 14.6m, 좌대높이 4.3m, 좌대지름 13m, 광배높이 17.5m 규모의 대형 석가모니불로 민족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 불상 뒤쪽에는 입구를 통해 불상 내부로 들어가면 내법원당이 나오며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글,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 (시설팀)

의료사회사업팀 - 송지원



병원은 일반적으로 아파서 찾는 곳이다. 아픈 사정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치료여건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주된 예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사회사업팀은 그런 상황들을 도와 건강을 되찾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송지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의료사회사업팀의 역할은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치료비문제나 간병인문제, 환자로 인한 가족의 생계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서, 주된 목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병원이 있음으로서 그 지역 사

회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안산은 공단지역이 많다보니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들이 많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질병이나, 준비가 부족한 젊은부부들의 미숙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인 산모가 위급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진료비가 필요했어요. 엄마도 애기도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안산은 타지역에 비해 중증도는 떨어지지만,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좋은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인 경우로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의료사회사업팀의 활동들은 작지만 성의 있는 기부금부터 시작하여 뜻이 있는 이들의 기부 참여로 꾸려진다. “기업, 노동조합, 개인이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결

혼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매년 백만원씩 기부해주시는 업무원님이 계세요. 이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이의 안과수술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어요.”

무료진료봉사를 통해 모르고 있었던 질병이 진단된 경우 원내의 진료부서와 연계해 치료를 해주고 그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료사회사업팀이 하는 활동이다. 예로는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던 외국의 아이들을 초청해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준 경우이다. “우리의 의료체계라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의료자원을 접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치료가 아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기금 뿐만 아니라 병원자체에서 수가에 대한 지원과 특진비 감면, 재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중단되고 있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 외부적으로 보기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기부자원이 부족하거나 기부자가 내세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증질환임에도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질환이나 지원대상을 특정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답니다.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기금조성 활동을 하는 것도 의료사회사업팀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의료취약계층을 돕는 일이야말로 인술의 실천이며, 사람의 생명은 어느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고대안산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은 햇수로 8년째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글, 사진 | 원내기자 고재철(직업환경의학과)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일간지


- 봄철 A형간염 주의보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국민일보, 뉴시스, 조선일보, 스포츠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 4월 1일
- 봄철운동 무리하다간 독된다 -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 국민일보 - 4월 1일
- 자전거 장시간 타면 전립선염 유발 -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비뇨기과 배재현 교수 - 경향신문, 스포츠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 4월 19일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역습, 목디스크환자 급증 - 직업환경의학과 김대성 교수 - 중앙일보 - 4월 22일
- 수면의 질 나쁘면 부부관계도 안좋다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연합뉴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 4월 28일
- 살인진드기 치사율 일본뇌염보다 낮아 -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한국일보 - 5월 22일
- 식중독 5~6월이 더 위험 - 소화기내과 정록선 교수 - 경향신문 - 5월 23일
- 성폭력이 남긴 상처, 반드시 치료 동반돼야 -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 헤럴드경제 - 5월 24일
- 고지혈증 예방하려면 -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 서울경제 - 5월 25일

방송

- 염산 누출 - 직업환경의학과 김대성 교수 - OBS, MBC 뉴스 - 4월 5일
- 수면무호흡증, 뇌졸중 위험높여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SBS, MBC, YTN 뉴스 - 4월 8일
- 코막힘 -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 SBS 생활경제 - 4월 8일
- A형간염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KBS 라디오주치의 - 4월 8일
- 누도질환 - 안과 이화 교수 - SBS 생활경제 - 4월 16일
- 알코올성 간질환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KBS 라디오주치의 - 5월 1일
- 직업환경의학이란 - 직업환경의학과 박종태 교수 - YTN 사이언스 의학칼럼 - 5월 1일
- 감기환자 급증 -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 Tbroad 뉴스 - 5월 10일
- 수질오염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Tbroad 뉴스 - 5월 14일
- 수두 -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 - Tbroad 뉴스 - 5월 14일
- 낮잠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인간유전체연구소 조어린 교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 5월 15일
- A형간염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MBN 뉴스리포트 - 5월 20일
- 중이염 -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 - SBS 생활경제 - 5월 30일
- 코골이 조기치료가 중요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KBS 뉴스 - 2월 18일
- 지주막하출혈 - 신경외과 임동준 교수 - SBS 생활경제 - 2월 21일


윤호경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GSK 젊은의학자상 수상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GSK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윤호경 교수는 201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Behavioural Brain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Impact of tryptophan hydroxylase 2 G-703T polymorphism on anger-related personality traits and orbitofrontal cortex’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젊은의학자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택시기사님! 건강운전하세요!



안산병원은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에 ‘택시기사님 건강운전하세요!’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친절리더팀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고대 안산병원에 내원하는 택시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상담,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건강지킴이 활동과 손톱깎이, 물티슈 등의 기념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택시기사는 “항상 운전대에 앉아서 근무하다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로 건강도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부, 환자들에게 카네이션 전달



간호부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4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빨강 비누꽃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기를 기원했다. 비누꽃 카네이션의 은은한 향기만큼 전달하는 간호부와 받는 환자사이에서 사랑의 향기도 온 병동에 퍼졌다. 


빠른 쾌유를 돕는 쾌적한 101병동 오픈!



안산병원은 지난 4월 29일 오전 9시에 101병동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오픈한 101병동은 안산병원의 증축공사로 폐쇄되어있던 공간을 리뉴얼한 것으로 성형외과/흉부외과 병동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51병상의 환자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은 정복할 수 있는가’ 건강강좌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은 4월 24일 오후 4시부터 ‘암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암 건강강좌는 ‘암은 정복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환자 및 보호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250여명의 참석자의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암 예방과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은 내가 의무기록 정리의 神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이상우)은 지난 5월 15일(수) 오후 5시 세미나실에서 의무기록우수전공의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전공의는 이비인후과 한원규 전공의이며, 4월 월별 재원미비 완성률 및 퇴원처리 전 퇴원요약지 입력률, 24시간내 입원기록 작성률, 24시간내 경과기록 작성률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정보관리위원회는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의무기록정리 우수전공의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PS 리더(환자안전담당자) 책거리시간 가져



지난 4월 25일 별관 2층 세미나실에서 PS리더(환자안전담당자) 책거리 시간을 가졌다. 2012년부터 “To Err is human”이라는 환자안전기본서로 매월 스타디를 진행하였는데, 4월 모임을 끝으로 책거리를 하게 됐다. PS 리더란 부서별 환자안전 담당자로 간호부, 진료지원부서 등 총 32명의 환자안전 관련 부서 대표들의 모임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적정진료관리팀에서 개최하는 매월 정기모임에 참석하며, 모임에서 있었던 교육내용을 각 부서에 돌아가서 전달교육을 하고, 병원전체에서 시행되는 환자안전 관련 사업(환자안전 QI 사업, 손위생 모니터 활동 등)에 참여한다. 매월 정기모임에서는 환자안전 관련 책 스타디, 주제별 교육, 월별 환자안전 뉴스레터 공유 등의 시간을 통해 환자안전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축적했다. 

2013년도 프리셉터 양성교육 실시



간호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관 대강당에서 경력간호사 27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프리셉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임명장과 함께 프리셉터 배지를 수여하였다. 이번 프리셉터 교육은 프리셉터의 자세, 기본병동관리, 기본 간호, 투약 간호, 입퇴원 간호뿐만 수월한 현장적응과 간호업무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정숙 간호실장은 “프리셉터 교육을 통해서 간호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의 수준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신입간호사가 적응하는데 잘 이끌어주는 참 교육자 되어주길 바란다” 신규 프리셉터를 응원했다. 앞으로도 간호부는 프리셉터 양성과정을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경력간호사들의 역량강화 및 신입간호사들의 실무현장 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진료예약센터 1577-7516
응급의료센터 : 031-412-538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 진료시간표

* : 선택진료 의사
기준일 : 2013년 6월 15일
http://ansan.kumc.or.kr

Table with columns: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Rows are categorized by department: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감염, 종양혈액, 류마티스, 내과일반, 상부위장관외과, 간담체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내분비외과, 정형외과, 신장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